전남 수출, 여수·광양·영암이 96% 차지

무협, 시군별 지표 첫 공개…여수 74% 압도적

석유화학·철강·선박 견인…품목 다변화 시급

여수와 광양, 영암이 전남지역 총 수출의 9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된 수출 집중도는 갈수록 높아져 수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2013년 전남무역동향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여수는 전체 전남 수출의 74.4%를 차지하며 전남 시·군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광양은 11.0%, 영암은 10.4%의 수출 비중을 보이며 2위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Big 3' 지역의 수출 비중 총합은 전체 전남 수출의 95.8%로, 전남지역 대부분의 수출품이 이 지역에서 생산됐다.

'Big 3' 지역의 수출입 편중도 심화하는 추세다. 세 지역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93.0%에서 지난해에는 95.8%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같은 기간 98%에서 98.4%로 증가했다.

여수와 광양, 영암의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대기업이다.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과 광양의 제철산업, 영암의 조선업 등 각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들이 석유화학과 철강, 선박 등을 수출해 전남 수출을 이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의 수출 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제품(37.3%), 합성수지(17.5%), 철강(11.8%), 선박(10.3%), 기타석유화학제품(4.7%)이 수출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20.8%로, 합성수지(21.3%)보다 낮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2008년 32.1%를 넘어선 뒤 줄곧 전남지역 수출품의 수위를 차지했다. 석유 및 화학제품은 전체 수출품목의 95.9%를 차지해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의 수출은 차지 비중이 극히 적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 품목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과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특정지역 편중'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균형된 수출 확대 전략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이 전남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남 시군별 수출 비중 (단위:%)

전남 시·군별 수출 비중(상위 5곳)					년도	전남 품목별 수출비중(상위 5개 품목)				
여수	광양	영암	순천	나주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판	선박	기타석유화학제품
67.7	19.3	9.5	2.5	0.2	2006	20.8	21.3	20.1	8.6	7.6
71.3	17.9	6.9	2.6	0.4	2007	22.4	21.5	18.7	6.6	8.1
75.2	11.4	8.4	2.6	0.5	2008	32.1	18.8	12.0	9.4	6.2
68.9	10.7	14.6	2.0	0.5	2009	25.2	20.5	11.0	16.0	6.0
71.4	11.9	9.7	2.5	0.6	2010	28.3	20.3	12.7	12.2	6.1
74.4	11.3	9.6	2.4	0.4	2011	35.8	17.1	12.2	10.2	5.2
74.4	11.0	10.4	2.2	0.7	2012	37.3	17.5	11.8	10.3	4.7

무안·진남·제일 새마을금고 경영 '우수'

광주·전남 평가대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형문)는 최근 서구 상록회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 최화삼 부회장을 비롯해 106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무책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광주전남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를 가졌다.

지난 2004년 새마을금고 사업종합평가대회로 시작된 광주전남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는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금고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하고 한 해의 사업을 조기 달성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금번 경영평가대회 경영우수금고에 무안새마을금고, 진남새마을금고, 제일새마을금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저소득층, 먹고 살기 바쁘고 고소득층, 여가·교육에 집중

소득·소비 격차 더 심화

소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의식주(衣食住)' 소비 비중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여가·교육'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소비 규모가 축소되며 백화점 업종 주가는 내리고 편의점·홈쇼핑은 올랐다.

19일 통계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2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가 18.2%, 보건 10.9%였다. 이 세 항목 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52.7%에 달했다. 의식주와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기본적인 씀씀이가 전체 소비의 절반이 넘은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11.1%), 주거·수도·광열(7.7%), 보건(5.8%) 등 세 항목 비중은 총 24.6%로 저소득층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교통(14.4%)이다. 교통은 고가의 자가용 운영과 기름값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으로 교육(14.0%), 음식·숙박(12.1%) 순이었다. 고소득층 교육 소비 비중은 저소득층(5.5%)의 2.5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을 보여줬다. 이는 교육 소비 중에서도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 비중이 고소득층 9.0%, 저소득층 3.1%인 것에서 보듯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고소득층은 오락·문화 소비 비중이 7.2%로 저소득층(4.5%)의 1.6배였고 의류·신발은 7.8%로 저소득층(4.2%)의 1.9배였다.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소비 비중은 점차 커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여유로운 삶과 미래 준비에 더욱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송기진 광주은행장 '창조경영인 대상'

'KJB사랑샘터' 등 사회공헌 높은 평가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창조경영인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와 중앙 SUNDAY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JTBC가 후원하는 '2013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은 대국민 리서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독창적이고 탁월한 경영을 선보인 각 분야의 최고경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송기진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총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행장의 이번 수상은 광주은행장 취임 후 사회공헌 전담부서인 사회공헌사무국 신설, KJB사랑샘터 운영, KJB금융박물관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등 나눔의 기업문화를 실천해 온 송 행장의 독창적인 행보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은행권 최초 사회공헌사무국을 신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생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소외 돈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KJB사랑샘터'로 선정해 후원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사랑샘터를 84개점까지 선정할 예정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후원하는 사회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준원 사회공헌사무국 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공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 8월 중단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 유예가 8월부터 중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 8만여개가 카드 수수료율 상승으로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심사해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오는 7월의 하반기 심사에서는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면 8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유예가 사라진다.

지난해 업종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일정 기간 적응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였을 때 유예했으나 하반기까지 연장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농촌체험활동 'MAS' 체결

〈다수공급자 계약〉

광주지방조달청이 19일 전국 최초로 농촌체험 활동용역에 대한 'MAS'(다수공급자계약)를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개시했다.

체험활동 용역계약은 (사)전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소속 강진군 달마지 마을과 영암군의 왕인촌 마을이 대상이며 계약금액은 1억9400만원이다. 그동안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해 개별적으로 직접수의 계약방식 등을 통해 해당마을을 선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상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업체와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갤럭시S4' 다음달 국내 출시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4'가 다음달 말 90만원대 후반의 출고가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4의 국내 출고 가격을 100만원에 채 못 미치는 90만원대 후반으로 결정하고 정확한 출고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3(99만4000원)나 애플 아이폰5(94만6000원), LG전자 옵티머스G(96만8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삼성 갤럭시노트2(108만9000원)보다는 낮지만 팬택의 베가넘버6 보다는 높다.

삼성전자는 이날 영문 홈페이지에 '대략적인 소매가격'을 650달러(약 72만2000원)로 표시했다. 이 가격대로라면 갤럭시S4는 미국에서 약 15%의 세금을 더해 747.5달러(약 83만1000원)에 판매된다. /연합뉴스